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생명으로서의 꽃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김 연 옥

생명으로서의 꽃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김 연 옥

인 준 서

김연옥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자연의 대상을 소재로 하여 석사과정 동안에 제작된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융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또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미의식을 지닌 인간에 의해 소재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꽃이라는 소재는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와 조화를 지닌 존재로 인간의 미감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꽃이 피고 지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은 자연의 순환을 가장 잘 반영하여주며, 인간의 삶과도 비유되어 예술의 소재로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꽃은 자연현상 가운데서 그 색과 향기만으로도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 꽃같이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말처럼, 예쁘고 화려하다는 것으로 지칭할 때, 꽃은 그 앞에 붙여 쓰이는 식의 은유적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꽃이라는 소재가 지니고 있는 우아함, 화려하고 신비스러운, 생명의 영속성을 이미지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상들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환에 대한 생명력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꽃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형태를 확대 변형시켜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으로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작품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꽃을 통하여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이미지를 확대하고, 배경과의 극적인 명암대비를 통해 꽃만을 더 부각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꽃이 지닌 상징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작품에 있어서 생명으로서 꽃의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부분 확대된 형태의 변형과 절제된 색채표현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0점의 작품을 내용적·조형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3
1) 자연과 인간.....	3
2) 상징으로서의 꽃.....	5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9
1) 형의 극대화.....	9
2) 흑과 백의 대비.....	11
3) 공간구성.....	14
4) 표현기법.....	15
3. 작품설명.....	17
III. 결론	39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품목차

[작품1]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20
[작품2]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22
[작품3]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24
[작품4] Whisper, 100x60cm	
Aquatint, 2005.....	26
[작품5] Whisper, 60x100cm	
Aquatint, 2005.....	28
[작품6]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30
[작품7] Whisper, 90x60cm	
Aquatint, 2005.....	32
[작품8]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34
[작품9] Whisper, 60x100cm	
Aquatint, 2005.....	36
[작품10]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38

도판목차

- [도1]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 붉은 칸나,
아리조나대학 미술관, 캔버스에 유채, 1923
- [도2] 조지아 오키프, 검은 붓꽃, 캔버스에 아크릴, 1926
- [도3] 조지아 오키프, 두 송이의 핑크 카라, 101.6x76.2cm,
필라델피아 미술관, 캔버스에 유채, 1928
- [도4] 엄정순, line in flower-morning, 116.8x91cm,
oil stick on canvas, 1997
- [도5] 엄정순, line in flower space, 227.3x181.3cm,
oil stick on canvas, 1997
- [도6] 김홍주, Untitled, 240x240cm, 캔버스에 아크릴, 1988
- [도7] 김홍주, Untitled, 190x190cm, 캔버스에 아크릴, 1997
- [도8] 램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 미소짓는 사스키아의 초상,
나무에 유채, 52.5x44.5cm, 시립미술관, 드레스덴, 1633
- [도9] 램브란트, 벨벳 베레모를 쓴 헨드리케 스토펠스, 캔버스에 유채,
74x61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1664
- [도10] 램브란트, 사스키아 반 아일렌부르흐, 나무에 유채, 99.5x78.8cm,
시립미술관, 카셀, 1634
- [도11] 램브란트, 강가에서 미역 감는 여인, 패널에 유채, 62x47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1655

I. 서 론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미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미를 표현하려는 강한 조형적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자연의 사물을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유한 자연현상의 변화와 조화 속에서 오묘함을 느끼고,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인간은 미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듯 자연이 주는 다양한 이미지는 인간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꽃은 예술의 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그 현상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꽃이 지닌 생명력은 자연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이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질서와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력이란 지속적인 운동과 변화이며, 정신과 물질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지속적인 창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연과의 일체 또는 동화에서 비롯된 생명의 실현은 자연대상의 시각적 단순화와 조형적 변형 그리고 색채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독특한 자기만의 예술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은 생명의 상징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의 일부인 꽃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순환과정, 즉 피어나 자라고 시들어 소멸하는 생명력으로서 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사이의 상호관계와 더불어 꽃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 속에서 자연의 순환과정을 보여주는 생명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꽃을 그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된 확대 변형된 이미지와 색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품제작에 있어 사용된 기법을 통하여 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작품분석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면서 느낀 주관적인 감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에서는 꽃을 나타냄에 있어서 전개된 내용의 요약과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음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자연과 인간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조화로운 질서가 있다.

인간은 자연현상 속에서 수많은 사물이 형성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환 속에 하나의 부분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통해 변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며, 반면에 삶의 여유와 행복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자연의 이해는 곧 인간자신의 이해와도 직결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인간은 자연과 양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자연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연세계와는 달리 분리되어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과 멀리 떨어져있는 듯 하면서도 자연적 경외심에 의해 묶여있는 이중적 존재자이다.

자연이 주객대립을 넘어서는 동양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근원적으로 일치하는 초원적 자아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자연보다 월등히 우세하거나 지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융화되기를 갈망한다. 버릴 수도 그렇다고 동등하기도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 자연은 인간을 보조하고 때로는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항대립으로 자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적인 왕래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사물을 제공 받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이로써 예술은 예술가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시인 에머슨(Ralf Waldo Emerson, 1803~1882)은 그의 1836년 수필집 <자연(nature)>에서 자연을 하나의 현상이 아닌, 정신적인 것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작품은 자연세계를 추출한 것이다” 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지대한 기쁨은 인간과 식물사이에 신비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다시 “자연은 내면적 진실의 상징적 표현을 우리들의 마음에 제공해주며, 자연의 형태들과 인간내면의 본질사이에는 공감(Correspondenc)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공감의 순환 즉, 인간의 영혼이 자연과 일체를 이룰 때 인간은 우주와의 합일(oneness)이라는 신성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

자연은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내면세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표현은 자연을 보는 시각적 척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연에 끊임없이 접근하여 세밀한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 표현양식으로 표현하는 일인 것이다.

영국의 대지예술가 리처드 롱(R. Long)은 황무지를 걸으면서 아예 자연자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이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거쳐 가는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²⁾

예술에 있어 자연의 표현은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진다. 또한 감성적으로 지

1) Maurice Tuchman, The Spital in Art: Abstract Painting 1890-1985, (New York: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86) p.43

2) 김용희 「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p.122

각된 자연은 보다 더 본래적인 풍요로움과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주관화시키고 화면의 순수한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듯 미의식과 예술 활동 또한 자연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연은 인간이 세계의 심연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 되고 있다.

미는 자연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며, 그 내면세계의 표현은 조형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창조적 작업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자연의 재결정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자연의 대표적 상징으로서의 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연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은 그 자체로서의 순수성과 자율성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연은 인간의 미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또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지표가 되기 위해 예술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고 관찰하면서, 작품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확대하여 가고 있다. 자연을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며, 자연은 인간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인 역시 자연의 모습에서 이러한 점을 폭넓게 인식하고, 자연을 통해 변함없는 인내를 배운다.

2) 상징으로서의 꽃

꽃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대상이다. 사전적의미로서 꽃은 고등식물의 번식을

말은 기관으로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꽃은 비록 작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피어나 자라고 소멸의 순환을 함께하는, 자연의 생명이 순응하는 장소로서 자연의 법칙 안에 존재한다. 또한 꽃이 내재한 생명감 그 자체만으로도 미적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간은 꽃을 가꾸고,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며, 인생을 꽃에 비유하여 마음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여러 예술가들이 꽃을 소재로 표현하게 된 것은 자연과의 일치를 원하는 마음에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꽃에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장식적 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회, 문화의 대표적 상징이미지로서 각 시대마다 새롭게 피어났다. 그 예로 서양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축제 등에서 왕관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꽃을 쾌락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특히 그리스의 아네모네를 통해 영혼과 연금술을 상징하기도 했다.³⁾

르네상스에 이르러 꽃은 종교적 우위를 암시하고,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 생명을 상징하며 성장과 유기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서양에서의 꽃은 기독교적인 사교의 근거 이래 성서적 내용이나 염원의 상징물로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동양에서의 꽃은 형형색색의 빛깔과 자태를 뽐내며 아름다운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매천 황현은 '꽃은 천 번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문인 노자원은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정화되고 아름다워지는 듯하다'라고 표현하였다. 외양적 측면에서 꽃은 미인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으로 대치되어, 예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을 화인(花人)이라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화태(花態)라 칭했다.

3)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p.47

중국에서 꽃은 생명의 짧음, 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산 여자들이 다음 세상에 꽃으로 피어난다고 상상하기도 했다.⁴⁾ 꽃은 망울을 맺고 활짝 피나 다시 시들어져 떨어지는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인간이 삶에 대한 소망과 결부시켜 재생이나 영생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자연을 낙관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순응해서 살아온 동양인들은, 꽃을 단순히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배우며, 광범위한 자연을 지니고 있는 꽃으로서, 꽃의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또한 꽃을 통해 자각의 마음과 터득의 경지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듯 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문화의 의식 속에 많은 의미의 상징성을 주고 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꽃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매력적인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작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의 식물 모티브는 커다란 캔버스를 하나의 꽃송이로 가득 메우는 꽃의 확대그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도판1><도판2>특유의 대담한 구성과 색조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낼 뿐 아니라, 작품에서 보여지는 신비한 빛과 무한한 공간은 자연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녀의 확대 기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꾸준한 실험의 결과이며 또한 관객과 정면으로 대치하여 속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는 <도판3>꽃들에서는 어김없이 강한 생명력을 읽을 수 있다.

꽃의 곡선적인 아름다움과 미묘한 색감은 구체적인 수단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소재의 대상만이 아닌, 꽃을 통해 삶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꽃이라는 모티브를 자신의 작업에 사용하여 표현한 작가들이 있다. 그 예로 엄정순의 작품<도판4><도판5>은 생명의 리듬을 나타내는 선

4) 이승훈 「문학의 상징사전」 서울: 고려원, 1995, p.80

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속의 선들은 생명현상의 기운(氣韻)으로서, 자유자재로 드로잉 되어 미세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선들은 생명의 구성요소인 미립자들의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비록 섬세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끈질긴 생명으로서 꽃을 나타내었다.

김홍주의 작품<도판6><도판7>에서는 형태를 단순화하여 하나의 꽃이나, 하나의 잎이 화면전체를 가득 채운다. 여기서 꽃은 화면의 일부라기보다는 화면 그 자체와 거의 일치하여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극대화된 꽃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생명체로서 꽃은 짧은 생명의 순환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흐름과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가장 화려하게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주기도 하지만 시들어 말라버리는 소멸의 순간까지, 그러나 그 죽음 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열매 맺고 있다. 이렇듯 꽃은 생성의 과정을 다 지닌 존재로서, 자연의 모든 형상은 생의 한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꽃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쓰이고 있다.

꽃의 생성과 소멸에서 오는 과정은 생명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본인은 생명의 순환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금 막 피어 오르는 개화직전의 꽃에서 시들어 소멸해버리는 꽃까지,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을 통하여 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꽃의 표현은 꽃이 함축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수반되어있는 죽음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상징한다. 꽃의 밝은 면은 아름다움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어둠은 이를 더 강하게 대비시켜준다.

작품 속에서 꽃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를 하나의 의미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형태의 꽃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본인이 상징하고 있는 꽃은 죽음도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자연의 순환 속에 생명의 미

를 찾고자 하였다.

꽃은 생명, 희망, 기쁨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여러 감정과 경험들은 상징하면서도, 자연계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성장과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타낸다. 또한 인간의 삶속에 예술적 영감을 주며, 꽃을 통한 작품은 자연의 축소된 현상으로, 생명의 숨결을 상징한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형의 극대화

예술작품에 있어 형상은 단순히 표현 대상의 겉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과 감정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으로서, 작가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어떤 것을 그리던지 외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을 담은 주관적 이미지에 대해 표현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형태는 대상에서 파악한 본질적인 특징과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여, 창조욕구가 과거의 감각경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성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⁵⁾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존재하는 꽃의 형상은 구상적인 모습이지만, 화면 속에서 표현의 극대화를 통하여 단순한 사물에서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있어 감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정하여 과감한 생략과 확대된 이미지표현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꽃의 이미지 확대, 변형⁶⁾은 대상에서 받은 감정을 형상화하고

5) Rudolf Arnheim 「예술심리학」 김재은, 이화여대 출판부, 1984, p.21

6) 변형이란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특징적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표현요소를 고의적으로 강조 또

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꽃은 본래 그 자체가 가진 실재감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 속 대상으로 바뀌어감으로서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난다.

본인의 전체적인 작업들은 꽃의 형상을 부분 절단(Cropped Technique)하여 이를 확대해서 그려낸 것들이다. 대부분이 화면가득 꽉 채워진 이미지들로 꽃을 표현하였다. 꽃이 말려있는 순간에서 활짝 피기까지, 생명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하였다.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벗어나 영구적인 의미를 갖고자, 본인의 의도하여 표현하는 상징물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리글(A. Riegl)은 ‘미술의 모든 형상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고 어떤 욕구의 충족이다’라고 하였다.⁷⁾ 그러므로 형상들은 자신들만의 주관세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확대된 꽃은 생과 사의 의미로서, 자연의 순환에서 오는 생명감을 담고 있다. 즉, 본인의 그림 속<작품3>의 확대된 꽃은 실재보다 크기가 클수록 존재감이 강조되어 표현된다. 이렇게 꽃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극대화시킴으로서 예전에는 느낄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보게 된다.

표현의 극대화에 있어서도 선행되는 과정이 대상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을 찾는 것이다.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정하는 것은 그림의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따라 표현이 좀더 풍부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는 생략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화면구성에 있어서 변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모티브의 특징적인 사실성을 부가하여 변형하는 방법,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모티브의 특성상 직선적인 성격이 강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곡선화하거나 각도를 주어 변형하는 방법, 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변형하는 방법들이 있다.

7) Herbert Read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역, 서울: 열화당, 1981, p.44

본인은 간결한 것을 통해 제시되는 쪽이 효과가 더 강하며, 작품에 대한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절제된 표현은 작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의미가 되며, 작품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 전달한다.

이렇게 부분 확대된 꽃은 화면 속에서 확장됨을 암시해주며, 이렇게 확대된 꽃은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는 작품에서 '귀퉁이가 잘려나간 그릇은 하나의 완전한 둥근 형태로서의 통상적인 인식을 넘어서며, 배경과의 일상적인 연관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새롭고 추상적인 형태를 생성하여 대상의 윤곽선을 파괴하고, 대신 새로운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하였다.

대상은 단순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본래 대상의 실재감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대상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꽃은 크게 그림으로써 화면에 집중력을 높여주고, 부분 확대된 이미지로 하여금 단순한 식물의 한 부분이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추상적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화면 안에서 부분 절단(Cropped Technique)⁸⁾된 형상은 극적인 연출과 주목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요소이며, 본인의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자연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 흑(黑)과 백(白)의 대비

색채는 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시각적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로

8) 접사기능을 이용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일부를 잘려나가게 하는 것으로 사진기법 용어로 '크롭드 테크닉(Cropped Technique)' 또는 '화면 자르기 기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사진기법에서는 '크롭핑(Cropping)기법'으로 '클로즈업(Close-up)기법'과 유사하다.

호소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언어이다. 색을 느낀다는 말은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인식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감각 또는 감정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색은 인식적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색이란 인격화된 인상으로 인격과 생활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프질링은 색의 힘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비로움에서 나온다고 하였다.⁹⁾ 따라서 색은 조형예술을 창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그러한 미술을 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색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색채의 선택으로서, 배경과 꽃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인은 카라꽃이 지니고 있는 고유색으로부터 탈피하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인의 색채를 드러내고자 했다. 꽃은 생명의 순환으로서 삶, 죽음, 부활의 이미지를 검정색으로, 빛과 어둠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검은색을 통해 빛을 발견함으로서 생동감, 활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은색은 빛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밝음에 의해 대조되는, 빛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색이기 때문이다.

빛은 대상 안에서 꽃의 밝음과 더불어 생명력을 강조해주며, 빛을 더욱 빛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흑백의 대비에 있다. 이렇게 작품 속에 표현된 빛과 어둠 즉, 흰색과 검정색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며, 이 둘의 의미가 하나로 담겨있다. 이는 자연의 생명체의 소멸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배경 속에서 풍겨오는 어둠은 그 안에서 다음 생을 예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전체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정색은 부정의 뜻도 긍정의 뜻도 동시에 포함되어 표현되고 있다.

9) 파버. 바렌 「색채 심리」 김화중역, 서울: 열화당, 1993, p.223

마가레테 브룬스는 그녀의 저서 수수께끼에서 “인간적인 눈과 생각에는 ‘빛으로 충만한 어둠’ 또는 ‘너무도 밝은 신적인 빛’은 위협적인 검정색처럼 보이며, 그 절대적 사유와 창조적인 힘에 의해 검정은 ‘공간’도 ‘공허’도 아닌 ‘무’인 동시에 ‘모든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검정을 흰색처럼 또는 빛의 색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종합된 빛과 어둠은 화면 속에서 적절히 배치되어 깊이감을 준다. 또한 화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그 정도에 따라 무한한 공간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빛을 통한 명암의 대비는 램브란트의 그림<도판8, 9, 10, 11>속에서 더욱 잘 엿볼 수 있다.

램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는 빛의 표현효과를 드높은 경지로 승화시킨 화가중의 한사람이다. 램브란트가 사용한 빛은 직사적(直射的)인 조명법으로 어두움 속에서 인물이나 대상을 부분적으로 비추어 인간의 느낌과 표정, 그리고 주의의 분위기를 빛의 밝음과 어둠으로 대조시키고 있다. 그것은 보아야 할 곳과 가려야 할 곳을 선택한 작가의 한방법이었으며, 빛에서 밝혀지는 것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암시에 의한 시각에의 연상을 노리기도 한다. 그의 명암법(明暗法)은 신비하고 사랑의 정이 감돌고 있으며, 극적인 성격의 묘사는 빛에 의한 밝은 장면으로 인한 표정과 분위기 노출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램브란트는 빛이 밝음과 어둠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 나타나는 원리를 근거로, 빛과 사물의 만남에서 생기는 그림자와 음영을 밝음과 대비하여 자신의 감성깊이 들어있는 영혼을 표현한다.

빛에 의한 명암대비 즉, 어두운 배경에 밝은 사물은 가장 효과적으로 주제를 부각시켜준다. 이는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꽃과 배경의 색감을 대비시켜

10) 마가레테 브룬스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역, 서울: 세종연구원, 1999, p.269

시각적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둠속에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듯, 또는 감추듯, 생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여주었다. 또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하여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검정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토대로 하여 엄숙하며, 절제된 모습으로 생명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 공간구성

조형요소의 하나로 작품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공간구성은 사물의 외형 자체로 대상을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체에 감각적인 표현수단이 되기도 한다.

회화에 있어 공간은 새로운 차원의 지각과 더불어 선과 형상을 만들고,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과 신비성을 표현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예술가들은 이런 공간속에서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각자의 본질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정신세계를 가꾸가는 것이다.

샘 프란시스(Sam Francis,1923~)는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빛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색채와 빛을 이용해서 공간에 표현하였다. 그의 그림의 주제는 빛(색채)과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은 예술가에게 어떤 행위와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공간은 직관에 의한 상상의 공간으로, 새로운 감성이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또 다른 공간으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으면서도 가득 찬 느낌을 줄 수 있게 공간을 이끌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검은 색감으로 처리된 공간은 밝은 존재를 가리어버리는, 빛에 의해 드러난 현상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의 어둠은 단

순히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혼용된 어둠으로, 생성의 모태의 이미지로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다.

<작품7>속에 드러나는 공간은 단순한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무한성을 암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자칫 단조로운 화면으로 지루함을 줄 수 있지만 그려진 대상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게 유도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다분히 의도되었던 것으로, 작품에 드러난 대상의 형태와 더불어 중요한 조형요소로 표현되었다. 이는 그려진 대상과 작가의 심상을 강조함으로써 형태와 형태넘어에 있는 이미지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의 꽃은 보다 확장된 이미지의 폭을 가져다주기 위해 잘려진 이미지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된다. 사물이 가진 형태의 일부를 잘려나가게 함으로써 형태적 시각뿐 만아니라 내면적, 정신적 시각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배경과 사물의 표현을 뚜렷이 경계시키지 않고 하나의 톤으로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보다 강한 인상을 주기위한 것이다. 어둠으로 인한 공간이 단조롭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빛의 존재로 대상을 표현하여 화면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게, 심상이 담긴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배경의 어둠은 새로운 감성들이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많은 느낌과 감정을 의미하는 혼적으로 채워진, 작가의 개인적인 표현이다.

4) 표현기법

본인의 작품은 꽃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판화로 옮기는 과정으로 제작되었다.

꽃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표현한 작품들은 화면가득 어둠으로 채워지는 배경 속에 빛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어둠속에 드러난 이미지는 사진을 통하여 포착되었다. 작업에 있어 사진은 기억의 한계를 되살리는 자료로서, 참고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접거하고 있는 사진은 그 어느 시각 매체보다도 지시적 기능이 강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강력한 수단이며, 의사소통이나 기록이라고 하는 언어와 문자의 기능도 하고 있다.¹¹⁾

본인은 사진을 통하여 드로잉을 대신하거나 형태의 일부를 부분 절단(Cropping)하여, 꽃의 생명력과 유기적인 선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분적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전체가 상상될 수 있게, 각각의 사진들이 가지는 특징들은 작업의 수단으로 표현기법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인의 작품은 판화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동판화의 아퀴틴트(Aquatint)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다. 아퀴틴트는 면의 표현으로서, 동판에 송진을 뿌리고 열로 정착시켜 여러 단계의 부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톤의 느낌은 다른 판 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색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부식과정을 거쳐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여, 미세한 불규칙적인 면들로 만들어진 동판위의 요철을 깎아내면서 작업을 하였다.

판에 스크래치 되어 깎여진 부분은 이미지의 밝은 부분들로서 어둠에서 빛을 찾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판위에 잉크로 잉킹하여 찍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장한장 찍혀진 판화는 각각의 제 모습을 지닌다. 판면의 부식된 요철로 인해 찍혀

11)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 열화당, 1997, p.12

진 어둠은 작품 속에서 깊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품은 대부분이 어둠의 검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동판의 찍혀져 오는 어둠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3. 작품설명

꽃은 하나의 장식일 뿐이라 생각했다. 꽃 그 자체의 생김새, 색채, 질감.. 정확하게 묘사한 사실적인그림,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꽃의 그림 등등 어찌 보면 본인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길에서 집안에서 화단에서 자연의 어떤 대상보다도 쉽게 접하게 되는, 그로인해 지나쳐버리기도 쉬워진다.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오는 형상에서 조형작업을 토대로, 본인이 느낀 감정으로 확대된 형상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여 전체적인 화면구성을 하였다. 하나의 통일된 색감으로 다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순함에 포인트를 줌으로서 화면에 긴장감을 나타내기위해 형태를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은 대상의 형상을 더 돋보이게, 흑과 백의 대조를 통한 엄격한 분위기에서, 절제된 생명의 유기적인 선을 강조하였다.

카라꽃의 형상은 꽃꽂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본인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내었다. 절제된 표현과 함께 재구성하여, 본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대상의 확대는 새로운 형상으로 또 다른 감성을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형태들은 특정부분으로 각각 따온

카라꽃의 일부이며, 이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된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동판(아퀴틴트)¹²⁾에 색감을 조절하여 깎아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화면을 하나의 블랙톤으로 만들어 대상의 이미지를 찾아 들어가며 톤의 변화를 주었다.

카라꽃은 본래의 색상에서 벗어나 엄숙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차분하고 조금은 어두운 배경에서 묵시적인 분위기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화면의 공간도 실제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의도된 공간이며, 대상과 또 다른 새로운 공간과의 연결을 의미하여 주고자 하였다.

꽉 채워진 그림 속에서도 답답함이 없는 대상을 바라보는데서 시각적으로 여유를 주고 싶었다.

12) 에칭은 선의 표현이지만 아퀴틴트는 면의 표현이다.

[작품1]

화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어둠은 정지된 시간으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빛을 통해 드러나는 형체는 현란하진 않지만 어둠속에 매료되어서 이미지를 낳는다. 이렇듯 어둠은 형체가 다 드러나는 것보다도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시선을 이끌어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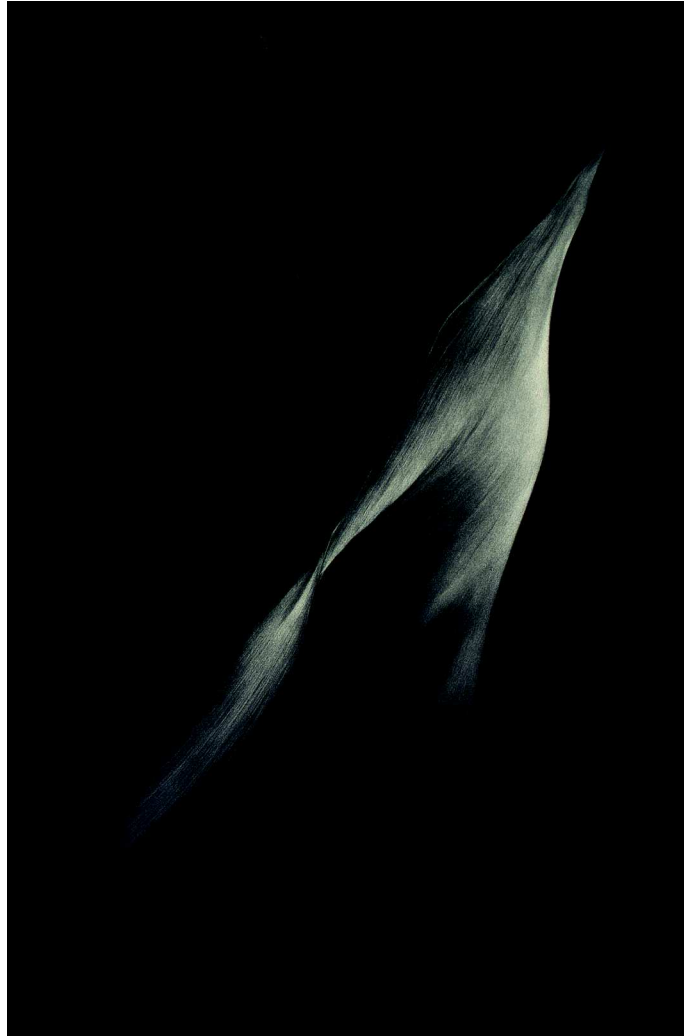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카라꽃의 대담하고, 시원스런 형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꽃이 지닌 생명력과 생동감을 잃지 않으며, 서정적인 공간구성을 통하여 간결한 형태로 표현 하였다.

대각선으로 젖혀진 곡면을 따라 빛의 변화를 찾아주면서 톤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꽃의 외형적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어둠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듯한 여운을 남길 수 있게 만들어 처리하였다.

바람에 나부끼듯, 살포시 포개어진 잎은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는 인체의 부드러운 옆선처럼, 꽃잎에서 보여지는 유기적인 선의 흐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식물성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카라의 꽃잎이 주는 섬세한 느낌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 속에서 대상과 배경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짓지 않으려 하였다. 이는 어둠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반면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1]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작품2]

작품 속에서 꽃은 단순히 장식적인 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더해주는 소재로서 선택되었다.

꽃은 언제나 본인을 자극한다. 시각적으로 경험한 꽃의 이미지는 본 연구자의 내면세계 속에서 각각 다른 형상으로 파생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꽃의 이미지는 사진 작업을 통하여, 동일한 이미지에서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표현하였다.

작품은 카라꽃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 속에서 생명의 잉태로서의 느낌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에서 부분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며, 색감은 검은 톤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도록 하여 조금 무거우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주었다. 활짝 핀 이미지 속에서 드러난 부분으로 꽃잎의 굴곡을 더 한층 강조하여 연출하였다. 꽃잎의 가장자리 부분은 포개어진 잎의 구부러진 형태를 좀더 부각시켜 나타내었다.

다소 식물적인 느낌보다 차가운 메탈느낌으로 보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전체적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된 이미지는 식상화될 수도 있지만, 작품이 가지는 생명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절제되고, 간결하게 확대하여 형태를 나타내려 하였다.



[작품2]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작품3]

작품의 소재는 언제나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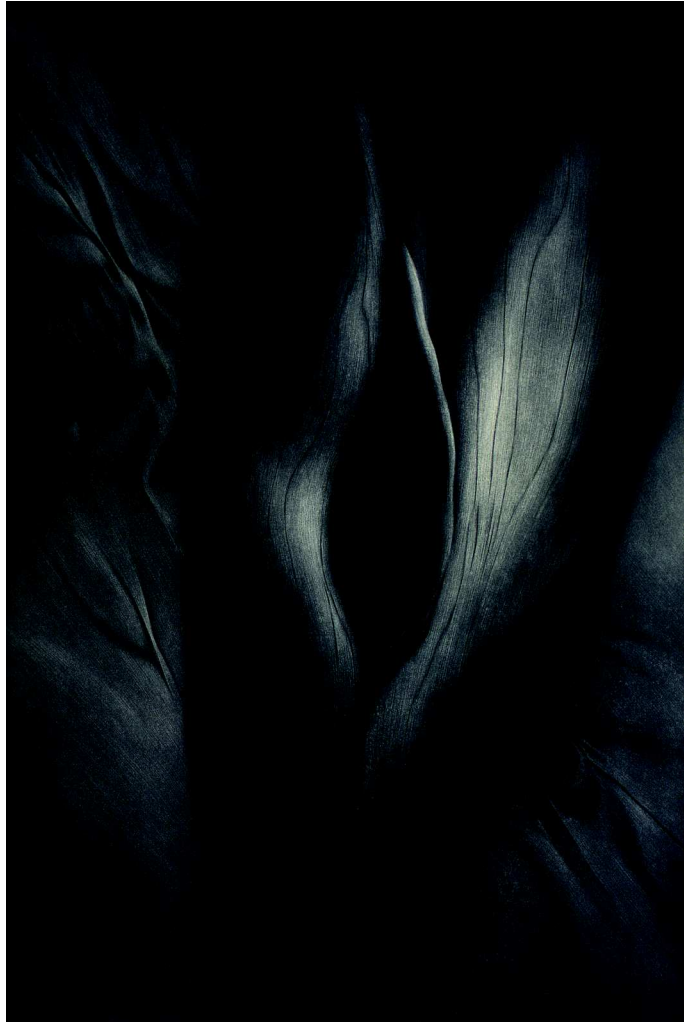
한 송이만이 크게 그려지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고 다르다. 꽃은 본인에게 일상으로서의 꽃만이 아닌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세계이며, 생명에 대한 메타포로서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형태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대로 꽃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실보다 극대화시켜서 본인의 생각,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물이 지닌 비례를 새롭게 지각하여, 추상적 이미지와 더불어 절제된 간결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작품에서 꽃은 자유를 힘껏 펼치고자 하는 개화직전의 이미지로 생명의 움직임에 담고자 하였다. 또한 검정색감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면 안에서 잔잔하게 톤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미미한 배경의 변화 또한 무한한 세계를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색감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에서 꽃과 배경의 톤이 비슷하여 보이지만 대상의 외곽을 다소 어둡게 구분지어 꽃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가느다란 터치로 과하지 않게 배경에 효과를 두어 공간감을 주었고, 꽃의 움푹 팬 공간으로 인하여 인체의 중심부처럼, 조금은 에로틱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작품3]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작품4]

단조로움 속에서 조금의 대담함을 돋보이게 하고자 한 작품이다. 카라꽃에서 느껴지는 단아하고 수수한 이미지속에서 다소 생명의 촉각적인, 날카로운 움직임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화면의 중앙에 밝은 포인트를 주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느낌을 부각시켜 나타내었다. 어둠에서 드러나는 또는 감춰지는, 여타의 것을 생략함으로써 꽃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빛은 대상의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중심에서 그 존재를 더욱 강조 받게 된다. 세부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섬세함을 잃지 않게 조형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꽃잎이 사라질듯 아님 드러나듯 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된 대상과 더불어 묵시적 공간으로서의 배경을 표현하였다. 약간은 허전한 듯하지만 과감한 화면에서의 변화를 주고자하였다. 시야를 보다 넓혀주면서 대지의 느낌처럼 유연하게 톤의 조절을 하였다.

대상이 지닌 묘한 매력을 가장 많이 극대화 시킨 작품으로 생생한 묘사력 보다는 조금은 대담하게 화면구성을 하였다.

다른 꽃들에 비해 카라는 꽃잎이 많이 없어서인지 개인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특히 주변의 잎이 많은 흔한 꽃들에서는 볼 수 없는 자칫하면 너무 비슷한 형태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순함이 더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꽃으로 다가온다.



[작품4] Whisper, 100x60cm, aquatint, 2005

[작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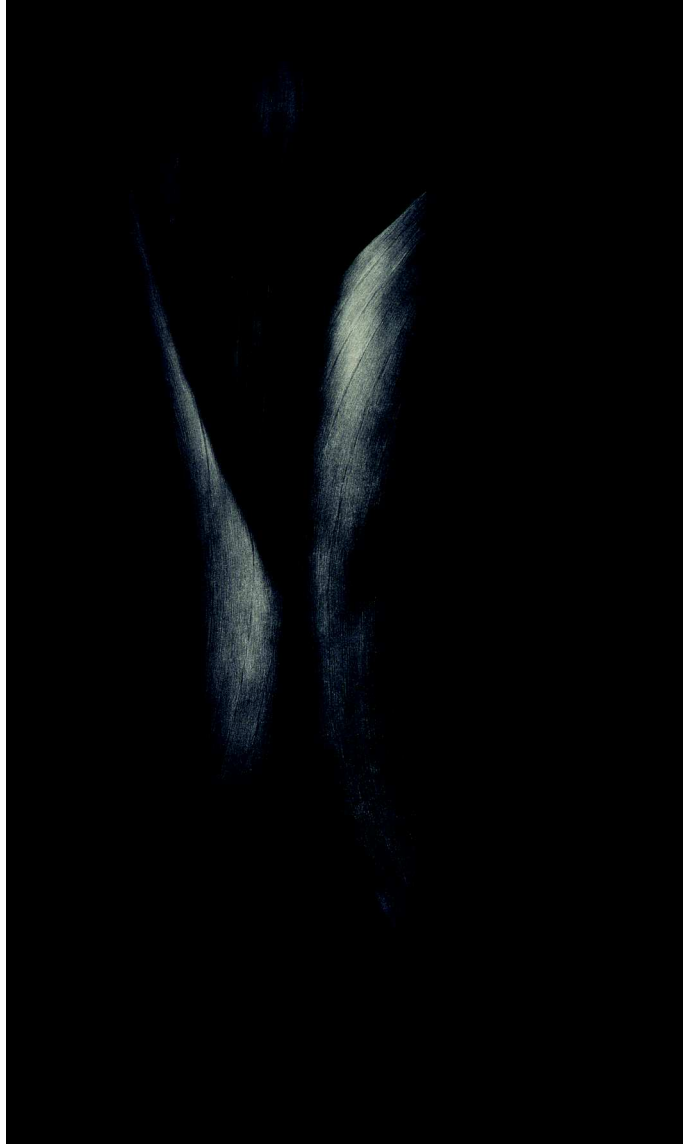
본인에게 대상의 형태와 색채는 그 자체로서 보다는 작업을 위한 수단이며
방편이다. 대상의 이미지는 단순함으로서 치부해 버리기보다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감정적으로 보다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게 표현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꽃이 화면에 무의미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가운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말린 잎은 세밀하게 그려주면서, 그
외곽의 경계는 어두운 톤으로 마무리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잎처럼 보여주
고자 하였다.

두개의 꽃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게, 어두움 배경의 효과로 형태가 여성의
신체의 한 부분처럼 생각할 수 있게 표현해 보았다. 이렇듯 꽃의 표현에 있
어 작품이 주는 느낌 또한 색다른 효과를 보려 하였다.

울망졸망 앙증맞게 피어있는 꽃들과는 달리 카라꽃은 미색의 단아한 하나
의 꽃잎이 특징이다. 꽃은 꽃잎과 줄기가 하나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꽃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수수하며 풍만함과 날씬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다. 그래서인지 카라꽃이 가지는 수수하고 긴 줄기가 주는 이미지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다.

작품 속에서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듯하지만 조금은 알아보기 힘
든 형태로 보여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작품5] Whisper, 60x100cm, aquatint, 2005

[작품6]

꽃이 있다.

그림의 배경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추어져있는 공간이다. 이속에 꽃잎은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서 대담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한다.

한없이 피어오른 꽃은 동경의 대상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며, 반면에 지는 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시든 꽃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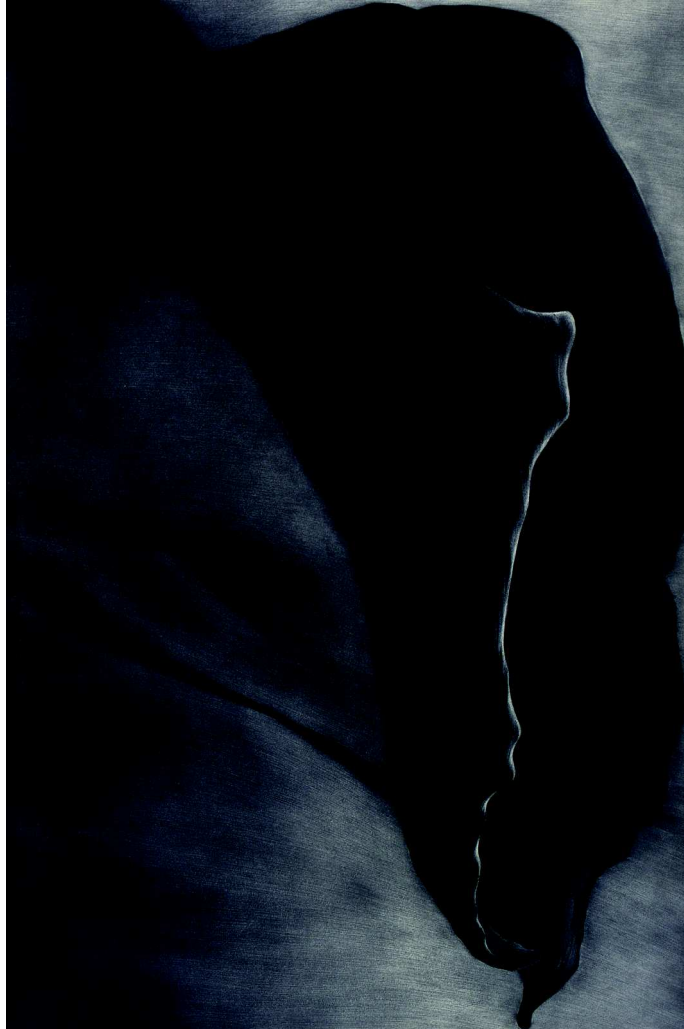
본인은 작품에서 시들어가는 꽃잎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였다.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빛을 받고 있는 부분과 검게 말라 들어가는 꽃잎을 대비시켜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다른 작품과 반대로 어둡게 표현된 카라꽃이 단아한 이미지에서 잊혀져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배경 또한 변화를 주어 나타내었다. 매마르고 건조한 느낌보단 고요하고 절제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또한 꽃잎의 단면을 통해 생명체의 기관을 느끼게 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된 순간부터 소멸로 이어진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피해갈수 없는 길이다.

꽃은 세상에 피어나 나오며 그 몫을 다하면 사라지듯이 그렇게 선택되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꽃은 피어나고 또 그 속에 묻혀 시들고 떠나고 만다.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서 저물어가듯 꽃은 그렇게 그림 속에서 채워져 보여 진다.



[작품6]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작품기]

꽃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동판(아퀴티트)작업은 섬세한 면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체색상은 검정계열로 엄숙하지만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여기에 빛을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빛을 통한 밝은 면은 자유롭게 표현된 꽃잎에 생명력을 더해준다.

본인은 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 작품은 겹쳐져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하여 대상과 공간사이의 경계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온통 검정색채의 깊이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꽃잎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빛은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어둠과 밝음의 잔잔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오른쪽화면에 자연스럽게 빛이 번져 나아가도록 하여 좌우 화면에 깊이감을 더하여 주고, 어둡게 표현된 꽃잎이 부분 앞으로 나와 보일 수 있게 의도하였다. 이는 단순함의 반복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고자 하기 위함이다.



[작품7] Whisper, 90x60cm, aquatint, 2005

[작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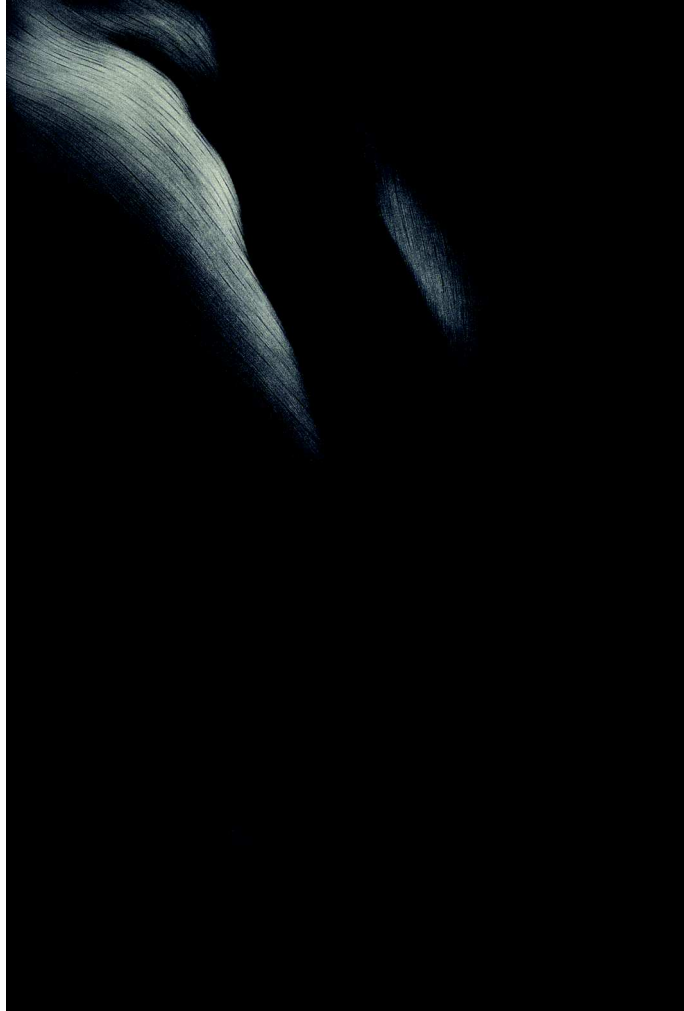
확대된 꽃은 어두운 느낌의 배경 속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지만 꽃은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로써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작품은 다분히 의도되어진 형태로서,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하여 다른 형상으로 보이는 새로움 또한 주고 싶었다.

실제보다 더 크고 절제된 공간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대상은 더 뚜렷이 본인에게 다가온다. 꽃잎의 젖혀진 면을 따라 드러나는 형태는 덩어리에서 실타래처럼 풀어져가는 형상의 이미지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배경 속으로 스며든다.

작품에서 꽃잎의 질감은 세심하게 조절하여 간결한 형태로서, 끊어질 듯 하면서 사라지게 화면에 연출하여, 부드러운 표면과 유기적인 형태가 여성의 육체처럼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였다.

전체가 검정 톤으로 빛을 받는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섞이도록 하여 색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하게 배경에서 형태를 분리하지 않고 의도된 형태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작품8] Whisper, 60x90cm, aquarell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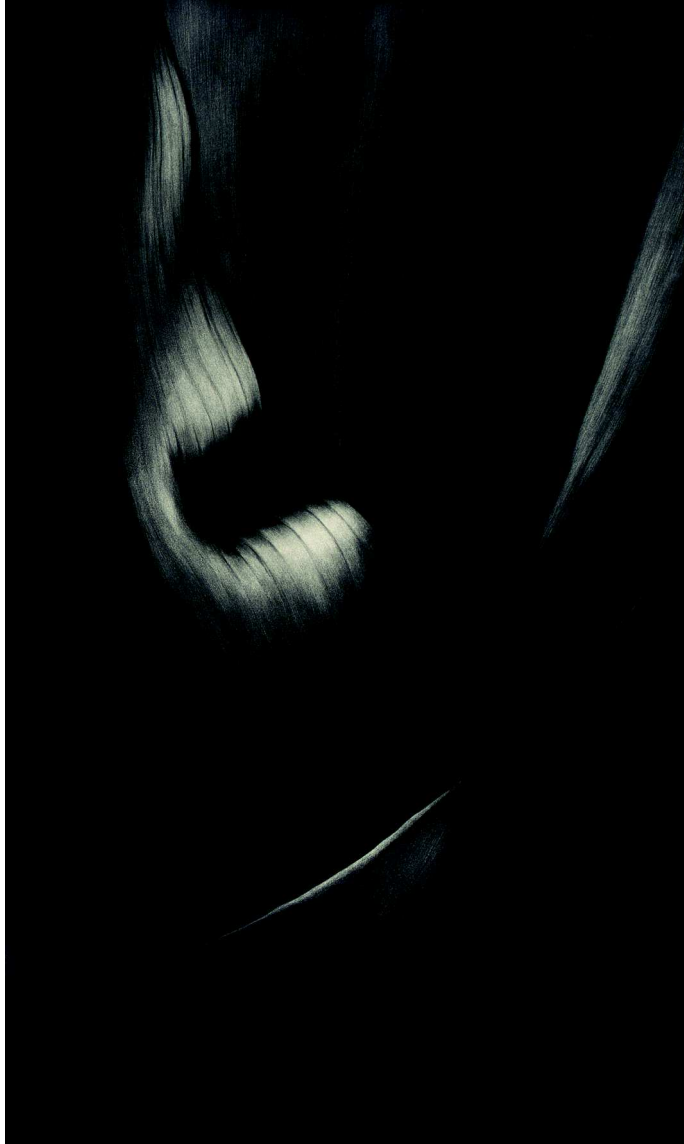
[작품9]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자세히 재현하고 싶었다.

빛과 그림자에 의해 볼륨감 있게 표현하고, 꽃잎의 유기적인 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생명의 움직임과 더불어 생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은 흑과 백의 대비로 화면의 긴장감을 강조하여주며, 빛을 통한 그림자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준다.

꽃의 부분은 화면 속에서 확장됨을 암시하여 주며, 극적인 명암대비로 인하여 동판의 물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림이다. 강한 빛의 표현으로 꽃잎의 질감이 금속의 질감처럼 다소 차갑게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경직된 이미지로서 표현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품9] Whisper, 60x100cm, aquatint, 2005

[작품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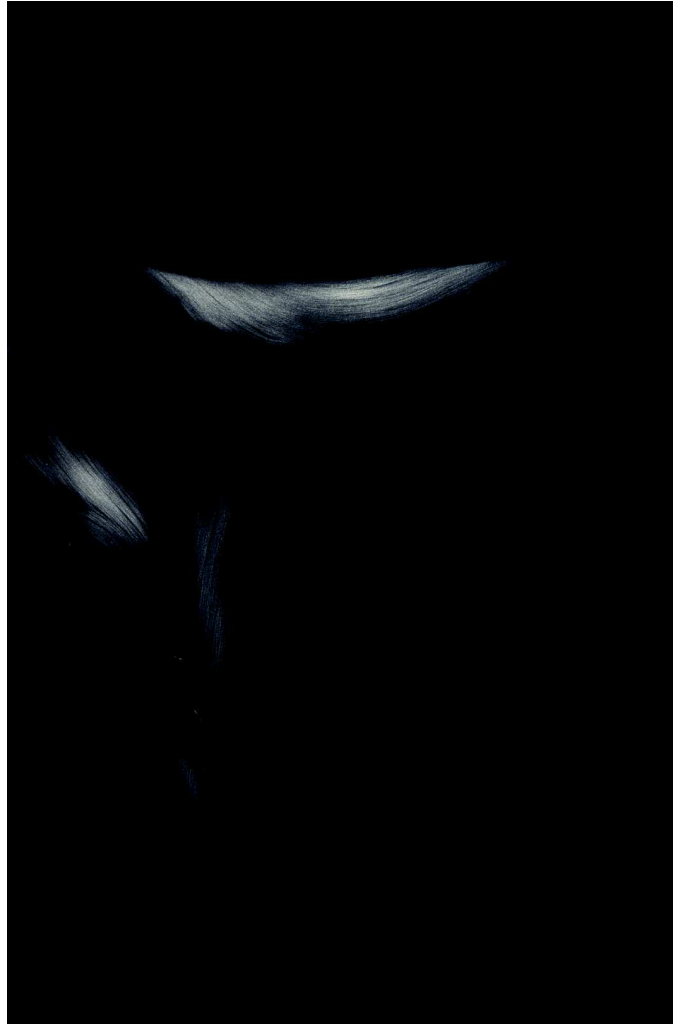
의도적으로 네모난 틀에 화면의 전면을 가득채운 꽃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그림 속에 등장한다. 절제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어둠으로 인한 공간은 엄숙하면서도 조용하다. 이는 동시대의 자극적이고 현란한 환경과는 극히 대조되는 고요속의 명상적인 추억을 떠올리고자 하였다.

확대된 꽃은 화면전체를 메우고 다양한 움직임은 울동미를 전해준다. 하지만 접혀진 종이처럼 표현되어진 이미지는 메마르고 가벼움을 준다.

말라 휘어진 잎은 복잡하지 않게 배경 속에 묻히고, 시들어 젖혀진 잎을 통하여 소멸해가는 존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없이 나약하게 보이는 꽃이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들에게서 생명은 한층 더 극대화 된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작품10] Whisper, 60x90cm, aquatint, 2005

Ⅲ. 결 론

예술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고 새로움을 향한 예술가들의 창조정신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주관세계가 표현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끊임없는 창조의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은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내면세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연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인간의 정신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본인은 자연의 순환 고리 속에서 꽃이 주는 생명력을 말하고자 하였다.

꽃은 본인에게 있어 자연의 아름다운 물(物)의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내면세계 속에서의 느낌과 더불어 표현함으로서, 생명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꽃에서 강한 생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오는 시각적 요소를 이용하여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 조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꽃의 이미지표현에 있어서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꽃의 형상을 부분 확대하였다. 또한 배경과의 극적인 명암대비를 주고자 하나의 통일된 색감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흰색과 검은색 즉, 빛과 어둠의 대비로 꽃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하였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으로서 꽃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의 탄생 즉, 부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꽃의 각각 다른 형상을 부분 사진 촬영하여, 동판의 아취틴트 기법으로 이미지를 깎아내어 작업하였다. 작품은 흑에서 백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미지를 드러낸다. 확대되고 절제되어 표현한 꽃은, 현실

속의 꽃이 아닌 생명의 의미로서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꽃은 밝음으로(빛으로) 부분 포인트를 주어 강조하였고 어두운 배경은 무한한 공간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꽃의 형상은 작가의 주관에 의해 독특한 부분을 부각시켰으며, 형태의 사실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절제되고 정결된, 다소 엄숙한 이미지를 유발하는 미세한 생명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부분을 통한 형상은 다시 전체적인 부분이 상상될 수 있게 이미지를 표현하였지만, 표현적인 면에서 흑백사진의 질감처럼 보여져 메조틴트와 아퀴틴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흑백의 대비와 확대를 통한 이미지는 생명의 유기적인 형태를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필요로 함을 느낀다.

그러한 의미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작품들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 좀더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참고도판



[도1] 조지아 오키프, 붉은 칸나, 캔버스에 유채
아리조나대학 미술관, 1923



[도2] 조지아 오키프, 검은 붓꽃, 91.4x75.9cm,
캔버스에 아크릴,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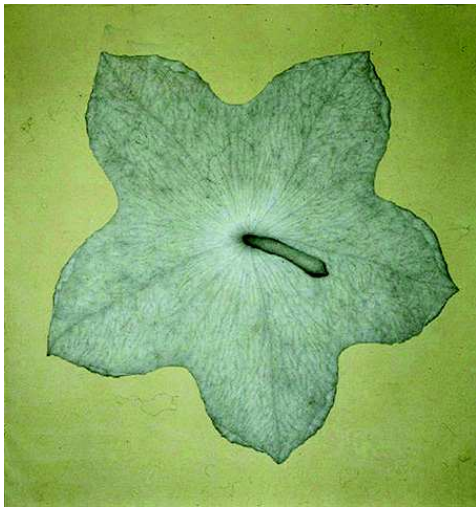
[도3] 조지아 오키프, 두 송이의 핑크 카라, 101.6x76.2cm,
필라델피아 미술관, 캔버스에 유채, 1928



[도4] 엄정순, line in flower-morning,
116.8x91cm, oil stick on canvas, 1997



[도5] 엄정순, line in flower space,
227.3x181.3cm, oil stick on canvas, 1997



[도6] 김홍주, Untitled, 240x240cm,
캔버스에 아크릴, 1988



[도7] 김홍주, Untitled, 190x190cm,
캔버스에 아크릴, 1997



[도8] 램브란트, 미소짓는 사스키아의 초상,
나무에 유채, 52.5x44.5cm,
시립미술관, 드레스덴, 1633



[도9] 램브란트, 캔버스에 유채, 74x61cm,
벨벳베레모를 쓴 헨드릭케 스토펠스,
루브르박물관, 파리, 1654



[도10] 램브란트, 사스키아 반 아일렌부르흐,
나무에 유채, 99.5x78.8cm,
시립미술관, 카셀, 1634



[도11] 램브란트, 강가에서 미역 감는 여인,
패널에 유채, 62x47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1655

참고문헌

- 김용희 「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 김창완외 「생명의 신비」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 마가레테 브룬스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역, 서울: 세종연구원, 1999
-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 넥서스, 1998
- 이승훈 「문학의 상징사전」 서울: 고려원, 1995
-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 논문집」 제5집, 1966
-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 Herbert Read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역, 서울: 열화당, 1981
- Rudolf Arnheim 「예술심리학」 김재은, 이화여대 출판부, 1984
-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 홍성사, 1997
- Wassily Kandinsky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서울: 열화당, 1979
- 파버. 바랜 「색채 심리」 김화중역, 서울: 열화당, 1993
- 파울 클레 「현대미술을 찾아서」 서울: 열화당, 1979
-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 열화당, 1997

ABSTRACT

A Flower as Life

-Centering around my work-

Kim, youn ok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and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writer's work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work.

Human beings have lived harmoniously with the nature or separately from the nature. All phenomenon of the nature has the beauties having the limitless potentials. Human beings changed them into subjects of their works.

Flowers exist harmoniously with the nature. Flowers always stimulate the sense of beauty of human beings. The process of blooming and scattering of flowers well reflects the circulation of the nature. It is compared to the life of human beings becoming the subject of art.

Flowers boast of its perfect harmony and beauty with its colors and smells. They compare something beautiful with flowers. When they say

something pretty and luxurious, they use the word 'flowers'. Flowers have the images of elegance, mysteriousness and eternal life. It tried to express the image of the flower as the power of life seeing the blooming and scattering of flowers. It expanded the shape of flowers to focus on their image and expressed the feeling of the writer briefly and moderately.

This work expanded the image to emphasize the life power through the flowers that show the creation and death of nature. Through the contrast of light and darkness with the background, it strengthened the image of flowers.

This paper studies the symbolic image of flowers and describes the meaning of flowers as life. It also studied the work of the writer in detail through the change of partially expanded shape and moderate color expression.

It analyzed 10 works of the writer with theoretical background. It will be good foundation for future works.